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20 호

2020년 2월 1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2020 UNGC 한국협회 정기 총회 (3/17) 안내
2. UNGC 한국협회, 반부패 프로젝트 BIS (Business Integrity Society) 런칭
3. SDG 액션 매니저 (SDGs Action Manager) 런칭
4. 2020 UNGC 회원사 간담회 (1/16, 1/31) 결과
5. UNGC Leaders Summit 2020 2차 얼리버드 (3/31)

■ 본부 소식

1. UNGC, 다보스 포럼에서 'SDG 앰비션' 임팩트 이니셔티브 발족
 - SDG 앰비션 - '행동의 10년'을 위한 비즈니스 임팩트 확대 (SDG AMBITION SCALING BUSINESS IMPACT FOR THE DECADE OF ACTION)

■ SDGs 소식

1. [SDGs 솔루션] 화물 컨테이너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기경재배 (Aeroponic Farming)
2. [Goal 3, 4, 6, 7, 13]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두산중공업
3. [SDG 미디어 존] 글로벌 목표 달성을 향한 혁신
 - 에마뉘엘 라가리그(Emmanuel Lagarrigue)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 수석 부사장, 울리 월팅(Ulli Waltinger) 지멘스 인공지능 대표 외 3인

■ UNGC 회원 뉴스

1. 한국거래소, 'ESG공시' 전담팀 마련... 사회적책임 정보공개 본격화
2. 한전KDN, 친환경 경영활동 선도 인정받았다
3. 두산그룹, 감사기구 독립성·전문성 돋보여...CSR위원회 운영해 사회적 책임 강조

■ CSR 뉴스

1. 정부·공공기관에 사회적가치 전담부서 생긴다
2.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 6년 일부러 제한... 기업경영 투명성 강화
3. ESG, 미래투자 필수 아이콘 되다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2019년도 연회비 미납 회원사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소식

1. 2020 UNGC 한국협회 정기총회 (3/17) 안내

2020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정기총회 안내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한국협회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계획하고자
'2020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특별히 올해 정기총회는 마이클 수 (Michael D. Hsu), 김벌리 클라크
CEO를 초청해 여성역량강화 및 위생·보건 분야의 사회적 임팩트 확산과
기업의 환경적 기여에 대한 식견을 공유할 예정이오니
회원사 대표님들께서 이번 총회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20년 3월 17일 (화요일) 11:00 - 13:30
- 장 소 포시즌스 호텔 아라볼룸 (6F)
- 참가대상 회원 대표 및 실무진

참석이 어려우실 경우 위임장을 협회로 송부하여 주시거나,
대참자를 필히 참석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2020 정기총회 일정

시 간	프로그램
10:30 - 11:00	등록 및 접수
11:00 - 11:30	본 회의 I. 개회사 II. 2020 총회 의제 및 전기 회의록 채택 III. 이사 일부 변경 의결 IV. 2019 사업, 결산 보고 및 의결 V. 2020 사업 계획, 예산안, 중장기 계획 보고 및 의결
11:30 - 12:00	특별강연 - 마이클 수(Michael D. Hsu), 김벌리 클라크 (Kimberly-Clark) 최고경영자
12:00 - 12:10	단체사진 촬영
12:10 - 13:30	오찬



마이클 수 (Michael D. Hsu)

現 김벌리 클라크 최고경영자(CEO)

前 김벌리 클라크 최고운영책임자(COO)

Kraft Foods 부사장

H.J. Heinz 부사장

Booz Allen & Hamilton 컨설턴트

* 등 록: 아래 '참가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시는 경우에는 첨부한 위임장에 서명하시어 2월 28일 (금)까지 한국협회 사무처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전 화 02 749 2149/50

팩 스 02 749 2148

문 의 gckorea@globalcompact.kr

[\[2020 정기 총회 참가신청\]](#)

[\[참가 신청\]](#)

[\[위임장\]](#)

2. UNGC 한국협회, 반부패 프로젝트 BIS(Business Integrity Society) 런칭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Business Integrity Society (BIS) 프로젝트의 런칭 및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BIS 는 반부패 관련 법·제도·정책 개선 지원, 고위경영진 및 실무진 반부패 인식 및 역량 강화, 기업 CEO 반부패 지지 선언 및 우수 기업 시상 등을 통한 공동노력 확산이 세 가지를 주축으로 우리 기업의 청렴성 증진을 도모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본 프로젝트를 위해 UNGC 한국협회는 사회책임투자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문 기관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rea Sustainability Investing Forum, KoSIF)과 협력하여 전문성 있는 반부패 플랫폼을 제공하고 법제도 개선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Business Integrity Society



- 세계은행과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I)의 글로벌 반부패 프로젝트의 3번째 펀딩 라운드 선정 프로젝트
- 프로젝트 기간: 2019. 10 ~ 2022. 10
- 대상: UNGC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및 고위험 산업군 기업
- 목적: 법·제도 개선을 통한 반부패 환경 조성과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역량 강화를 통한 공정하고 깨끗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



- 주요 활동
 - 국내·외 반부패 관련 법, 제도, 정책 리서치, 국회 반부패 포럼 구성 및 운영
 - 이슈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
 - 주요 부패 이슈에 대한 리서치, 국내외 자료 번역 발간, 자가진단 툴 및 가이드라인 발간
 - 고위 경영진 대상 반부패 포럼 및 실무진 대상 반부패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 총괄 :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 후원 : 세계은행,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
- 파트너(법·제도 개선)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환경 조성

- 반부패 관련 법, 정책, 제도 조사·연구
- 국회 반부패 지지 선언
- 국회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발족 및 운영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반부패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 제안



역량 강화

- 고위 경영진의 반부패 인식 제고
- 실무진 준법윤리경영 역량강화
- 산업별 반부패 이슈 대응 및 협력
- 자가진단 및 반부패 가이드선 제공



공동 노력

- 기업 반부패 지지 선언
- 우수 이행기업 발굴 및 시상
- 상호 학습을 통한 준법 윤리경영 이행 강화
- 포괄적 민관협력을 통한 반부패 기업문화 구축



지난 2019 년 10 월 24 일 코리아 리더스 서밋 행사에서 BIS 런칭 세레모니를 가진 후, UNGC 한국협회와 파트너 기관 KoSIF 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등 프로젝트의 기반을 마련해왔으며, 2020 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반부패 정책 리서치 △전문가 초청 간담회 △주요 정당 대상 반부패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정책 질의 △국회의원 반부패 서약이 예정되어 있으며, 하반기에는 △CEO 대상 반부패 포럼 △기업 실무진 대상 반부패 세미나 △산업별 반부패 가이드라인 제작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진행되는 BIS 프로젝트의 모든 활동과 관련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및 BIS 웹사이트(www.bis.or.kr)를 통해 공유될 예정이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

부패 근절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프로젝트,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는 지난 2009 년 7 월 세계은행(World Bank)과의 합의 하에 발족되어 그 해 첫번째 펀딩 라운드에서 전세계 30 여개 프로젝트, 2013 년 두번째 라운드에서 24 개 반부패 프로젝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두번째 펀딩 라운드에 선정된 Fair Player Club (FPC) 프로젝트를 3 년동안(2015-2018) 운영하며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산업별, 지역별, 국가별 반부패 이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230 여개 기업/기관들의 반부패 서약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2019 년에 개시된 세번째 펀딩 라운드에서는 UNGC 한국협회가 총괄하는 BIS 프로젝트가 유일한 한국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2022 년까지 3 년 간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기]

3. 'SDG 액션 매니저(SDG Action Manager)' 런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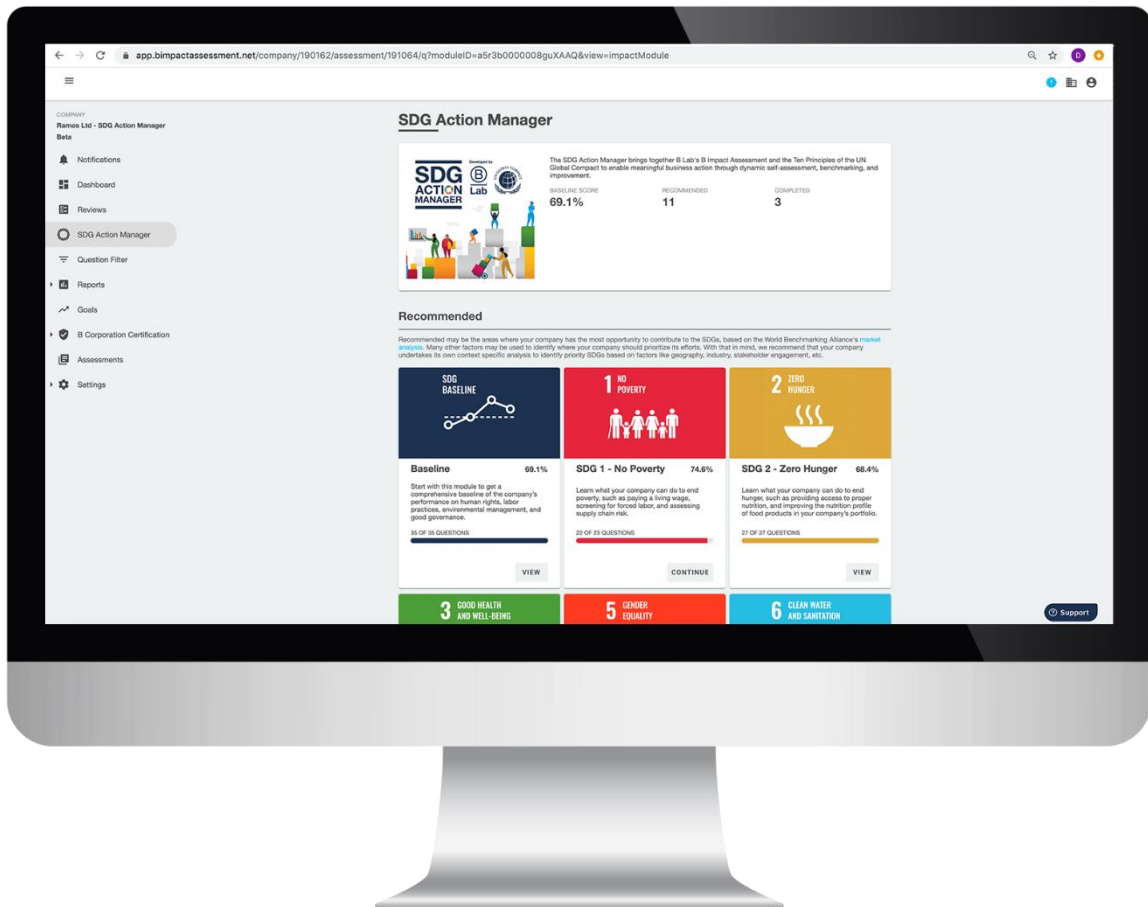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모든 비즈니스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된 자사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임팩트 관리 솔루션, 'SDG 액션 매니저'를 런칭했습니다. B 랩과 UNGC가 공동개발한 'SDG 액션 매니저'는 B 랩의 B 임팩트평가(B Impact Assessment)와 UNGC의 10대 원칙 및 SDG 를 통합한 전문적인 자체 평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벤치마킹 및 개선을 위한 도구를 제공하여 보다 의미있는 기업 지속가능성 활동을 지원합니다.

SDG 액션 매니저를 통해 기업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출발점 찾기 (Find your starting point.)**
기업 프로필에 기반해 가장 밀접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확인하고,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지 파악합니다.
- **임팩트 이해하고 공유하기 (Understand and share your impact.)**
귀사의 경영, 공급망,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긍정적 임팩트를 미칠 수 있고, 각 SDG와 관련된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 **목표 설정하고 성과 추적하기 (Set goals and track improvement.)**
SDG 액션 매니저 대시보드에서 야심 찬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진행 상황을 시각화합니다.
- **회사 모두가 협업하기 (Collaborate across your company.)**
회사 동료들과 함께 SDG 액션 매니저를 사용해보고, 각자의 전문지식을 주고받으며 귀사의 현 상황과 성과를 확인합니다.
- **각 단계 별 학습하기 (Learn at every step.)**
관련 자원에 액세스하고, 평가 질문과 개선 가이드를 통해 임팩트 높은 행동을 학습합니다.
- **함께 개척하기 (Trailblaze together.)**
2030년까지 사람과 지구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적인 기업 행동에 동참하십시오.

귀사의 출발점을 오늘 'SDG 액션 매니저'로 확인해보세요.



['SDG 액션 매니저'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혹은 글로벌 목표란 무엇인가요?

A: 글로벌 목표라고도 불리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전세계적인 협의 끝에 2015년 193개 UN 회원국들이 승인한 17개의 목표를 말합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30년까지 사람과 지구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입니다.

Q: SDGs 목표를 이행하는데 비즈니스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A: SDG 비전은 기업이 SDGs 이행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글로벌 목표 달성의 과업을 견인할 것을 기대합니다. 기업은 SDGs 이행에 당위적으로 참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SDGs 목표에 맞춰 비즈니스 모델을 재조정하고 공동의 목소리를 통해 추가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적극적인 행위자로 변모해야 합니다.

Q: 누가 SDG 액션 매니저를 사용하나요?

A: SDG 액션 매니저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전세계 모든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웹 기반 임팩트 관리 솔루션입니다. 해당 솔루션은 기업의 글로벌 목표 이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Q: SDG 액션 매니저를 통해 개인이 SDGs 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나요?

A: 아니오, 해당 솔루션은 개인이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Q: 재단이나 비영리 단체가 이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SDG 액션 매니저는 기업용으로 설계되었지만 다른 기관에서도 동일한 솔루션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 SDG 액션 매니저 개발을 위해 B Lab 과 유엔글로벌콤팩트가 협력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UNGC 와 B 랩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가 글로벌 목표 이행을 시작하고 실천에 옮기는 데에 필요한 도구와 방향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고자 우리의 전문 지식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접근방법을 통합하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안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Q: SDG 액션 매니저는 어떻게 개발되었나요?

A: SDG 액션 매니저에는 B 임팩트평가(B Impact Assessment, BIA)의 SDG 관련 문항과 UNGC 10 대 원칙 및 SDG 에 기반한 새로운 성과 평가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두 기관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Q: B 임팩트평가(B Impact Assessment, BIA)란 무엇이며 SDG 액션 매니저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B 임팩트평가(BIA)는 회사가 직원, 지역사회, 고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는 평가 틀입니다. BIA 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비콕 인증을 받기 위한 3 가지 요건 중 하나입니다. 그에 반해 B 랩과 UNGC 가 공동 개발한 SDG 액션 매니저는 UNGC 10 대 원칙과 SDGs 를 통합하여 기업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스스로 리스크를 식별하고 진전 상황을 분석하여 경영, 공급망, 비즈니스 모델, 집단 행동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그 영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SDG 액션 매니저를 통해 사용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내용의 B 임팩트평가 뿐만 아니라 SDGs 에 초점을 맞춰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SDG Compass 란 무엇이며 SDG 액션 매니저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UNGC 가 GRI,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와 공동개발한 SDG Compass 는 기업이 SDGs 를 내부 전략과 기업활동에 내재화하고 SDGs 이행에 동참하는데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SDG Compass 는 기업이 SDGs 이행에 있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5 단계를 제시합니다. 반면, SDG 액션 매니저는 기업이 2030 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웹 기반 임팩트 관리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은 기업이 자체 평가, 벤치마킹, 개선 노력을 통해 의미 있는 기업 행동을 지원합니다.

SDG 액션 매니저 후원 & 자문

컨텐츠 자문단: Danish Institute of Human Rights (DIHR);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 Impact Management Project (IMP); Center for Ethics and Social Responsibility at the Leeds School of Business,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 University of Geneva; and World Benchmarking Alliance (WBA) 등

펀딩 파트너: The UK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the Generation Foundation, Canada's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 (IDRC), Emmanuel Faber(개인 후원자), the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the 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 the Skoll Foundation

[\[자세히 보기\]](#)

4. 2020 UNGC 회원사 간담회 (1/16, 1/31)

1 월 16 일과 31 일, UNGC 한국협회 OPEN DAY 가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간담회는 2 회에 걸쳐 35 개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UNGC 활동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회원사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진솔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담회의 첫 순서로 지난 2019 년 한해의 UNGC 활동을 정리하였습니다. 광글 선임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대한 높아지는 관심과 행동 요구를 바탕으로 시작된 UN 의 기후행동 캠페인 및 UNGC 의 1.5°C 글로벌 임팩트 이니셔티브와 기술 분야 SDGs 달성 지원, UNGC 아카데미 등 글로벌 차원에서 성과를 보인 프로그램들을 소개하였습니다. 나아가 향후 상호 역량 강화와 영향력 증대를 위해 각 회원사 담당자 분들의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UNGC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은 협회의 2020 년 사업계획을 소개하며, 기업의 반부패 증진, 여성역량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한국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 Business Integrity Society (BIS), Target Gender Equality (TGE), 기후행동 라운드테이블 (CART)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여성역량강화와 관련하여 UNGC 본부와 전세계 20 여개의 지역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Target Gender Equality (TGE) 프로그램 및 성 격차 분석 툴(Gender Gap Analysis Tool)을 소개하였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과 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3 월 17 일 개최되는 UNGC 한국협회

총회와 UNGC 출범 20 주년을 맞이하여 6 월 14-16 일에 UNGC 뉴욕본부에서 개최되는 리더스 서밋 2020 를 소개하며 회원사들의 관심과 참가를 청하였습니다.

[UNGC 한국협회 연간계획 보러가기](#)

[UNGC Leaders Summit 2020 정보 확인하기](#)



사업계획 발표가 마무리된 후에는 UNGC 한국협회 활동 전반에 대한 회원사 담당자들과의 질의응답 및 논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담당자들은 국내 CSR 환경 및 각 기업의 특수한 현황들을 공유하며 지속가능경영 활동 임팩트 증진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현안을 공유하였습니다.

- △ 지속가능경영 관련 규제 및 국내외 법·제도 동향 파악
- △ 기업 내 지속가능경영 관련 부서와 사업 부서 간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방안
- △ 임직원 대상 ESG, SDGs, 지속가능성 이슈 소통 및 교육 방안
- △ 투자자를 포함한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기업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개 대응
- △ 기업 우수사례 공유 및 UNGC 임팩트 극대화 방안

특히 회원사 담당자들은 한국협회가 앞으로도 지속가능성 이슈의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전달과 실무자 및 고위급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해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UNGC 의 글로벌 논의 및 자료 제공과 더불어 국내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았습니다. 한국협회는 2019 년 신연회비 정책을 도입한 후 회원사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산업계 의견을 적극 전달하고 있으며, 언론, 학계, 시민사회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기업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질적 이행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후 협회 활동과 관련하여 건의사항이 있는 회원사들은 언제든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UNGC OPEN DAY는 2월 7일과 14일 총 2회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진행될 간담회 결과 또한 뉴스레터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오니 UNGC 회원사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5. UNGC Leaders Summit 2020 2차 엘리버드 (3/31)



UN GLOBAL LEADERS
COMPACT SUMMIT 2020

유엔 글로벌콤팩트 출범
20 주년 행사에
초청합니다.

2020년 6월 15-16일, 뉴욕

#LeadersSummit



2020 년의 문턱에 접어들면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시한이 10 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올해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출범 20 주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뜻 깊은 새해를 맞이하여 유엔글로벌콤팩트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 다자주의의 미래, 유엔의 가치에 대하여 전세계 회원사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인 UNGC Leaders Summit 2020 을 개최합니다. 세계 최대의 기업 지속가능성 논의의 장이자 축제가 될 Leaders Summit 은 2020 년 6 월 15 일-16 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금번 행사는 유엔 본부 총회장 및 뉴욕 최대의 컨벤션 센터인 제이콥 재비츠 센터에서 진행되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탄생지이자 글로벌 기업활동의 심장부에서의 뜻 깊은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UN 사무총장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UN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 2020



리세 킹고
유엔글로벌콤팩트 CEO



알 고어
미국 前 부통령



자밀라 자밀
배우, 사회운동가

- **일시:** 2020년 6월 15-16일
- **장소:**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총회장, 제이콥 재비츠 센터
- **주요 일정:**

기조연설/ 환영 리셉션 / 소규모 세션 / 네트워킹 / 전시관 운영* / 문화행사 등

금번 Leaders Summit 행사는 뉴욕 최대의 컨벤션 센터인 제이콥 재비츠 센터에서 개최되어 참여기업이 직접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행사기간 동안 보다 활발하고 풍부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기업의 활동과 관련 제품을 포춘 500 대 기업의 최고경영진과 세계적인 리더를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일정 금액 후원을 통해 6 월 16 일 제이콥 재비츠 센터에서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제이콥 재비츠 센터 전시관 전경 (예시)>

15-16 일 본 행사 외에도 14 일에는 뉴욕의 곳곳을 경험하실 수 있는 투어 및 행사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14 일에는 전 세계를 일주하는 크루즈이자 UN 특별협의 자격을 가진 NGO로서 세계시민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피스보트(PEACE BOAT)가 뉴욕에 정박하는 날로, 내부 투어 등 오직 뉴욕에서만 가능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사 주간 하이라이트



6월 14일 일요일



6월 15일 월요일



6월 16일 화요일

참가 등록 웹사이트에서 UNGC Leaders Summit 2020 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2020 년 3 월 31 일까지 2 차 얼리버드 옵션으로 티켓 할인이 가능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본 행사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사무처(☎02-749-215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UNGC Leaders Summit 2020 더 알아보기\]](#)

본부 소식

1. UNGC, 다보스 포럼에서 국가적 차원의 기업 지속가능경영 확대를 위한 'SDG 앰비션' 임팩트 이니셔티브 발족



"SDG 앰비션"은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의 필요를 고려한 성과 지향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2020년 1월 23일,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기업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업 활동에 내재화하도록 지원하고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SDG 앰비션 이니셔티브'를 발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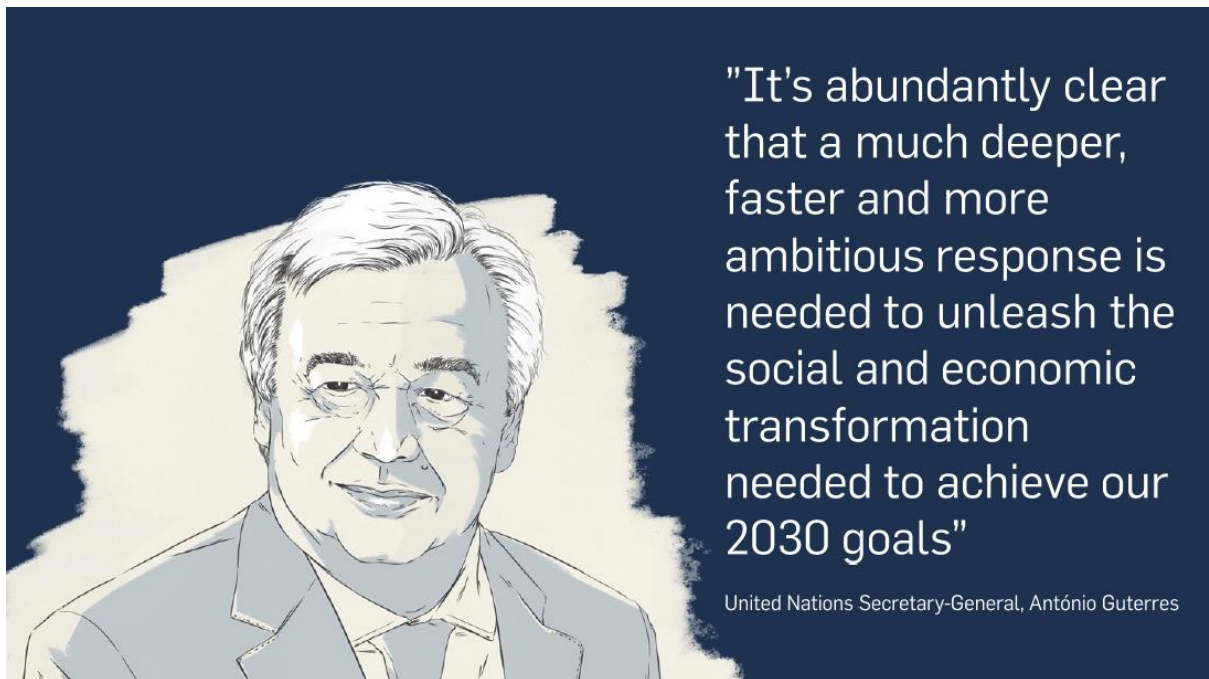
"현재 전 세계 기업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대응하는 속도와 규모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세계 기업의 과감한 목표 의식과 단결된 협력 없이 SDGs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SDG 앰비션' 이니셔티브를 통해 보다 대담하고 전략적인 '뉴 노멀'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SDG 앰비션'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이 발족한 이니셔티브입니다. SDG 앰비션은 SAP, 액센츄어(Accenture)와 협력하여 개발되었으며,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SDGs를 경영 전반에 내재화하고 그 성과를 평가 및 관리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SAP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액센츄어와 비전을 공유하여 SDG 앰비션 이니셔티브에 기업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기업이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할 것입니다."며, "SDG 앰비션은 전 세계 비즈니스 생태계에 영감을 주고 각 전문 분야의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기업이 선의를 위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2030 어젠다 달성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니퍼 모건(Jennifer Morgan), SAP 최고경영자가 밝혔습니다.

“이제는 비즈니스의 약속과 실천이 진전을 보여야합니다. 이런 시기에 SDG 앰비션은 매우 시의적절한 이니셔티브이며 긴급한 시대의 요구에 대담하고 실제적인 대응이 될 것입니다”라고 줄리 스위트(Julie Sweet) 액센츄어 최고경영자가 강조했습니다. “액센츄어는 혁신과 파괴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 사회가 당면한 핵심 문제들을 해결하고 SDGs 달성의 규모와 속도를 한 단계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중요 과업에 유엔과 SAP 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60 개 국 이상의 지역협회를 기반으로 'SDG 앰비션'을 이끌것입니다. SDG 앰비션은 40 개국 1000 개 이상의 기업을 동원하여 임팩트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 전반에 있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세히 보기]

[발간물] SDG 앰비션 - '행동의 10년'을 위한 비즈니스 임팩트 확대 (SDG AMBITION SCALING BUSINESS IMPACT FOR THE DECADE OF ACTION)'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점진적인 접근이 아닌 급진적인 변화입니다. 기업들은 경영 활동과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하여 단결해야 합니다.
- 안토니오 구테헤스 (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전 세계 기업들은 현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속도나 규모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조직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과 더 과감한 목표 의식 없이 SDGs 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SDG 앰비션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세계적 차원의 움직임에 새로운 추진력이 더해지길 기대합니다.
- 리세 킹고(Lise King)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Contents

'행동의 10년' 추진에 시동 / '행동의 10년' 킥스타트----- 4

비즈니스 성공 기준의 변화----- 6

SDG 이행 프레임워크----- 8

SDG 앰비션 -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새로운 이니셔티브 ----- 16

인류는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SDGs 이행에 있어서는 매우 더딘 진전을 보이고 있거나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빈곤, 생물다양성 손실, 사회적 불평등 확대 등의 문제로 인해 인류의 미래는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류는 “환경보전의 목표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어떻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다행인 점은 2030년까지 1.5°C 목표 달성을 위해 지구온난화 속도를 조정하고 세계적 차원의 불평등을 감소하고 SDGs 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세계 기업들이 새로운 ‘뉴노멀’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비로소 이러한 전환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을 맞아 우리는 SDGs 이행을 위한 ‘행동의 10년’의 문턱에 섰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SDGs 달성을 위한 새로운 10년을 맞아 발족된 SDG 앰비션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업들이 비즈니스 관행을 변혁하고 SDG 이행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SDG 앰비션은 기업이 비즈니스 관리, 프로세스, IT 환경 등 기업 경영 전반에 SDGs 이행 목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인 접근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경영 목표, 거버넌스, 전략에 있어 더욱 과감한 SDG 이행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 속도와 규모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기업이 파트너 기업들과 더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비즈니스 생태계 전반에 파급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자세히 보기\]](#)

SDGs 소식

1. 화물 컨테이너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경재배 (Aeroponic Farming)



아그리쿨(Agricoool)은 일반 **화물 컨테이너**를 기후 조건이 제어된 도시 농장 '쿨테이너(Cooltainer)'로 개조합니다. 탄소 발자국을 최소화하고 도심에서 신선한 딸기를 생산하기 위해 **공중 재배** 방식을 사용합니다.

아그리쿨에서 개발한 쿨테이너는 파리에서 신선한 딸기를 재배하기 위해 개조된 화물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내부는 밀폐되어 온도, 빛, 습도 등 환경 조건이 완전히 제어되고 쿨테이너는 재생에너지로만 가동됩니다. 분무식 수경 재배 방식은 식물이 토양 없이도 주변 안개를 통해 풍부한 영양분을 얻고 재배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아그리쿨은 전통적인 재배 방식보다 자사의 방식이 120 배 더 생산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식물 맞은편 벽에는 자연 태양광 스펙트럼을 모방한 인공 LED 조명이 설치되어 기상 조건이 일괄 제어된 성장 환경을 조성합니다. 쿨컨테이너의 밀폐 공간에서는 물이나 영양분이 외부로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재배 방식과 비교하여 90%의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환경과 완전히 차단되어 작물 재배에 병해충 위험이 없어지고 살충제와 제초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쿨테이너는 여러 도시에 설치되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리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아그리쿨은 농장에서 소비자의 식탁까지의 거리를 20km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까지 파리에는 4 개의 쿨테이너가 설치되어있고 앞으로 더 많은 제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그리쿨은 사업 확장을 위해 2,800 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프랑스와 두바이 전역에 걸쳐 100 대 이상의 쿨테이너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두바이에는 이미 첫 쿨테이너가 설치되었습니다.

왜 아그리쿨의 기술에 주목해야 할까요?

인구 증가, 빠른 도시화, 토지 황폐화,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위기를 비롯하여 식품 공급 체계를 위협하는 요소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쿨테이너의 스마트 도시 농업 기법은 운송 거리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다시 연결합니다. 더 나아가 쿨테이너는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에너지와 수자원 소비를 줄여 지역 생산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합니다.

How the Global Goals are addressed



기아의 종식

아그리쿨은 도시 내·외에서 탄력적이고 생산적이며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농업 시스템을 개발하는 도시농업 스타트업 중 하나입니다.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쿨테이너는 자원 효율이 높아 기존 방식보다 물을 덜 소비하고 재생에너지로 가동됩니다.
농장에서 소비자의 식탁까지의 거리를 줄이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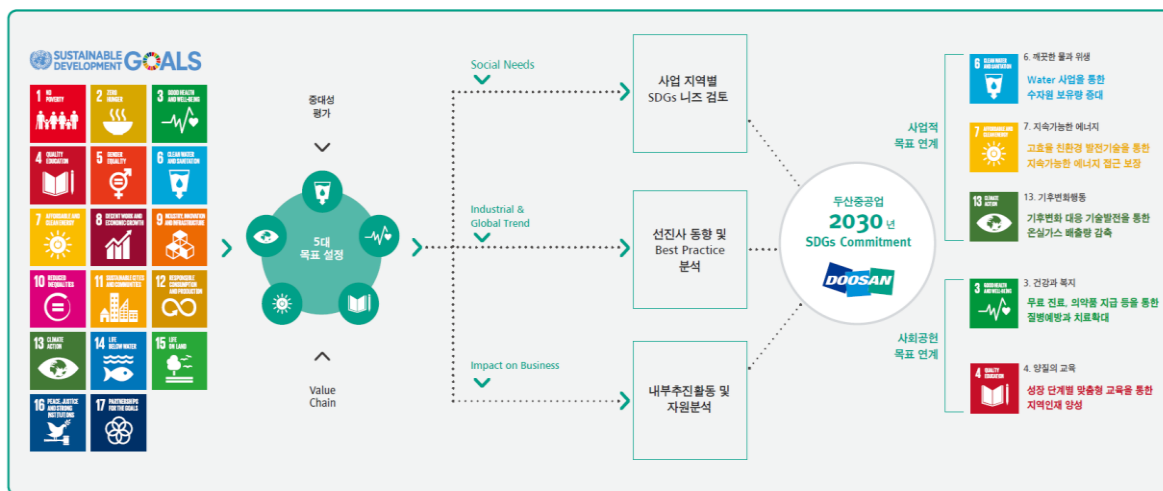
[\[원문 보기\]](#)

2. [Goal 3,4,6,7,13]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두산중공업



1.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두산중공업은 UN SDGs 를 새로운 사업기회로 생각하여, 두산중공업의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역량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적극 동참하고자, 사업지역별 적합성 검토, 시장 벤치마킹, 다양한 혁신활동 분석 등을 통해 UN SDGs 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업행동 지침을 반영한 목표 연계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깨끗한 물과 위생',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후변화행동', '양질의 교육', '건강과 복지' 등의 SDGs 가 두산중공업의 사업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정된 SDGs 에 대해 두산중공업은 2030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사업목표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구체적인 달성 목표와 기간을 설정하고 공개적인 Commitment 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하고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진출 시장의 다변화, 사업수행 실적의 확대를 바탕으로 기여목표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사업 및 프로젝트별 사회, 환경 측면의 데이터 관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성과관리 지표를 분석하여, 사회적, 환경적 기여가치(Impact Value)에 대한 관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2. SDGs 전략 및 사례

Goal 6. 수자원 보유량 증대

“2030년까지 Water 사업을 통해 아라비아 반도 지역 수자원 보유량을 BAU 대비 10%(20억 톤) 이상 증대시켜 전 세계 물 부족 지역에 수자원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두산중공업은 아라비아 반도를 포함,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수자원 보유량이 부족한 지역에 수자원 공급 지속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목표로 잡은 20 억 톤은 현재 아라비아 반도의 수자원보유량과 2030 년 예상치를 바탕으로 두산중공업의 과거 수주 실적과 공격적 수주 목표 등을 혼합하여 결정한 목표입니다. 또한 세부목표 6.1 안전한 식수의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성 개선 및 6.3 수자원 방류 최소화, 수처리 기술을 통한 재활용, 재사용 등의 확대와도 관련된 목표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사우디 안부의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완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하루 180 만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55 만톤(121MIGD*)의 담수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사우디 쇼아이바에서 하루 40 만톤 규모의 담수화 플랜트를, 오만 Sharqiyah 해수담수화 프로젝트에 주기기 공급 뿐만 아니라 지분투자자로 참여하며 디벨로퍼로서 첫 발을 내딛는 등 아라비아 반도의 수자원 확보에 계속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친환경 수처리 기술 '탈황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수주하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대용량 담수화 설비 추가 건설 및 Water reuse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전세계 인구가 위생적인 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용된 물은 수준 높은 수처리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물부족에 따른 사회적 이슈 해결에 기여하겠습니다.



Goal 7.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보장

“2030 년까지 고효율 친환경 발전기술로 전 세계 신홍시장의 친환경 석탄화력발전 공급량을 BAU 대비 6%(40GW) 이상 증대시키고, 고효율 가스터빈·풍력발전·ESS 등의 에너지 기술 증진을 통해 에너지 믹스 다각화에 기여한다”

두산중공업은 Emerging Market 을 대상으로 향후 15 년간 약 40GW 규모의 고효율 가스터빈, 풍력발전, Smart Grid 기술 등을 통한 에너지믹스 다각화에 선도적으로 임하겠다는 목표로 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과 전통적 석탄화력의 환경설비 강화 등 다양한 발전기술의 증진으로 기여폭을 높이고자 합니다.

두산중공업은 해상풍력시스템 시장을 선점해 오고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 포트폴리오 확대와 ESS Smart Grid 기술 확대 진행 등 다양한 발전 기술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세부목표인 7.1 에너지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 보장, 7.2 신재생 에너지 비율 증진을 통한 에너지믹스 다각화, 7.3 기술증진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등과 관련된 목표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보장에 대해 다양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해상풍력발전단지인 30MW(3MWx10 기) 탐라해상풍력단지를 성공적으로 준공했으며, 600MW x 2 기 규모의 베트남 Vinh Tan4 석탄화력발전소에 최신기술을 적용하여 고효율로, 환경부하를 최소화하여 좀더 친환경적으로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석탄화력으로 운영되던 영동화력발전소를 바이오매스 발전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대한민국 최초로 성공시키는 등 전통적인 석탄화력발전소를 보다 효율이 높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발전소로 바꾸어 나가고 있으며, 미국회사인 두산그리드텍이 미국 Austin Energy 사와 함께 수행하고 있는 ESS 통합 솔루션 공급 프로젝트인 'SHINES'가 미국 재생에너지 관련 유력 매체인 GTM(GreenTech. Media)로부터 올해의 가장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 (2018 Grid Edge Innovation Awards)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앞으로도 해상 풍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고효율 가스터빈 개발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과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융·복합된 차세대 전력 체계인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확대하는 등 에너지 믹스 다각화에 기여하겠습니다.



Goal 13.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2030년까지 대한민국 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20%(7만톤) 감축시키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두산중공업은 에너지 효율화와 Digital Factory 활동을 통해 UN에 제출한 INDC(국가자발적 감축목표)에 적극 기여하고자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후변화 대응 R&D 투자, 공급망 에너지 절감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지속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BAU 대비 20%(7만톤) 감축이라는 이 목표는 전사 로드맵 기준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선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오랜 감축활동을 한 회사에게는 비교적 도전적인 목표이지만 전 지구적 이슈에 대한 의지표명을 위해 내부 임직원들도 적극 수용한 사례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준수를 위해 에너지 통합제어 시스템(1단계) 구축으로 3,236t CO₂의 배출량을 감축하였으며, 창원 공장 러닝센터 태양광+ESS 설치 등 효율개선활동으로 19,758t CO₂를 감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협력사 에너지진단 실시 등 Green Partnership을 통한 협력사의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 지원하고,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Digital Factory 부분에 에너지효율 process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Big data를 기반으로 최적의 에너지사용을 기하고 있으며, 해외 CDM 사업발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Goal 3. 질병예방과 치료 확대

“2030년까지 베트남, 인도 등 낙후지역 소외계층 주민 8만 명에게 기본약품을 공급하고 현지 진료를 지원하여 세계 보건수준 향상에 기여한다.”

SDG 분석을 통해 글로벌 전체 사업지역을 바탕으로 한 지역별 social needs를 파악했을 때 베트남과 인도의 의료접근성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그간 지속적으로 실행해온 의료지원 활동을 보다 도전적으로 시행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중앙대 병원 협력 사회공헌 사업으로 매년 2,800여 명의 베트남 소외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무료진료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110명의 난치성 질환자의 무료 수술을 지원해왔습니다. 인도에서는 Health Camp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2,000여명의 인도 소외계층 주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진단과 필수약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앞으로도 베트남, 인도 등 낙후지역 소외계층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기여를 확대해 나갈 것 입니다.



Goal 4. 지역인재 양성

국내 사업장 지역 아동센터, 초·중·고 학생 연간 3 천 명을 대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지원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두산반,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단 등 이공계 교육 제공을 통한 기술인재 양성 및 취업률을 올리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두산중공업은 '두산 M.Y. Dream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운영을 통해 직업탐색/체험/설계 등의일련의 프로세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멘토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진로체험단 4차 산업혁명 관련 직업 Contents 추가, 엔지니어 체험교실 상시 운영 및 명장 특강 실시, 지역아동센터 테마 프로그램 참여 센터 확대 등으로 지역인재 양성과 소외계층 아동의 평등한 교육기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About these SDGs goals

SDGs 세부목표 6.1는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안전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이고 동등한 접근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1977년 유엔 물 회의(UN Convention on Water)에서 채택한 마르델플라타 행동계획(Mar del Plata Action Plan)은 사회, 경제적 조건과 발전 정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식수에 대한 필요를 충족하도록 하는 접근의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MDGs에 안전한 식수에 대해 지속가능한 접근을 할 수 없는 인구를 반으로 감소한다는 목표가 포함되었습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2002년 물 권리를 명시하였고, 이를 계기로 유엔고위급 실행위원회(UN High-Level Committee on Programmes)는 2003년 위생을 포함하여 담수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루는 부처간 기관인 UN WATER를 발족했습니다. UN WATER는 2005년부터 2015년을 '생명을 위한 물(Water for Life)'의 10년으로 지정하여 추진하였으며 2015년 이후부터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 보장이 SDGs에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SDGs 세부목표 7.3은

에너지 효율 개선율의 두 배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 21은 지속가능발전의 자발적 이행계획입니다. 이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002년에 개최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에서는 모든 정부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적정가격의 청정 에너지 효율 및 에너지 보존 기술을 확산하여 국내 에너지 효율성 증대 프로그램의 도입을 권고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요하네스버그 선언에서 중요성을 명시한 것을 계기로 2006년,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14차 세션에서 에너지와 산업을 주제로 에너지 소비 경향, 각 산업별 에너지 효율성을 논의하였습니다.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SE4ALL)에서는 세 번째 목표로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SDGs에서도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DGs 세부목표 13.3는

기후관련 완화 및 조기경보에 관한 인적, 제도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기후변화협약(UNFCCC, 1992) 제6조에서는 동 협약에 참여하는 당사국이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개발 이행하며 기후변화에 관한 대중 인식 제고 및 훈련과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유네스코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에 관한회의(2009)에서 본 선언(Bohn Declaration)을 채택하여 기후변화교육(CCE) 이니셔티브를 발족하고, 기후변화교육을 통해 대중의 인식제고를 추진했습니다.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한 파리기후협약에서는 기후적응행동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과 기상관측 시스템을 강화하는 칸쿤 기후적응 프레임워크(Cancun Adaptation Framework)를 발족하여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SDGs에서도 이 같은 노력에 이어 기후변화를 위한 역량 강화를 추진합니다.



SDGs 세부목표 3.8은

재무위험관리,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 및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정가격의 필수 의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헌장(Constitution of WHO, 1948)에서는 '모든 사람의 건강을 개인과 국가의 최대 협력에 기반하는 평화와 안정을 얻기 위한 근간'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헌장을 뒷받침하여 1978년 WHO와 UNICEF가 공동 주최한 1차 보건 의료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채택한 알마아타 선언(Declaration of Alma-Ata)에서는 '모든 국가의 모든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국제사회, 모든 정부, 모든 의료 및 개발 종사자의 긴급한 행동이 요구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WHO에서는 동 선언을 바탕으로 2010년 '세계보건리포트: 보편적 의료보장으로 가는 길'을 발간하였고,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구성하는 두 가지 축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주요 보건 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접근 보장과 재무위험관리의 범위확대를 포함합니다.



SDGs 세부목표 4.4는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기업가 활동에 필요한 전문 및 직업 기술을 포함한 관련 기술을 가진 청소년과 성인의 수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유네스코(UNESCO)의 '1962 전문 및 직업 교육에 관한 권고사항'에서 기술, 직업 교육(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TVE)을 처음 집중 조명하였고, '2001 전문 및 직업교육에 관한 권고사항 개정판'에서는 기술 및 직업 교육이 고용과 취업기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인이 사회생활에서 교육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1960-70년대 초 개도국을 지원하는 양자, 다자 협력의 핵심 요소였던 기술 발전(Skills Development)과 기존의 기술 및 직업 교육(TVE)을 더한 TVSD는 1996 정책강령과 MDGs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2000년 EFA 목표 3번에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생활능력과 학습촉진에 포함되어 추진되었고, 이에 SDGs에서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문보기]

3. [SDG 미디어 존]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

- 에마뉼엘 라가리그(Emmanuel Lagarrigue)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 수석 부사장, 울리 월팅(Ulli Waltinger) 지멘스 인공지능 대표 외 3인

[다국적 기업과 청년세대의 역할]



<댄 토마스(Dan Thomas) 유엔글로벌콤팩트 홍보최고책임자, 옌스 조셰크(Jens Joschek) 코베스트로(Covestro) 이노베이션 대표, 다이앤 다인(Dianne Dain) UN 기술혁신 연구소장, 에마뉼엘 라가리그(Emmanuel Lagarrigue)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 수석 부사장, 울리 월팅(Ulli Waltinger) 지멘스 인공지능 대표>

유엔글로벌콤팩트는 2019년 11월 5일부터 7일간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개최된 '웹서밋'에 참가해 3일간 SDG 미디어 존을 운영했습니다. 약 7만여명의 혁신가와 기업가들이 참석한 이번 웹서밋에서는 IT 기업의 창립자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 정책결정자, 정치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글로벌 비즈니스의 새로운 시대를 구상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매회 뉴스레터에 SDG 미디어 존에서 다뤄진 각 주제 별 토크의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크는 댄 토마스(Dan Thomas) 유엔글로벌콤팩트 홍보최고책임자, 에마뉼엘 라가리그(Emmanuel Lagarrigue)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 수석 부사장, 울리 월팅(Ulli Waltinger) 지멘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대표, 다이앤 다인(Dianne Dain) UN 기술혁신 연구소장, 옌스 조셰크(Jens Joschek) 코베스트로(Covestro) 이노베이션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본 토크에서 패널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의 달성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국적 기업과 청년세대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다국적 기업과 청년 기업가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어떻게 함께 창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엔스 조세크 대표는 “다국적기업은 청년기업가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이행 및 확장할 수 있는 ‘스타트업 챌린지’와 같은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이앤 다인 UN 기술혁신 연구소장은 “다국적기업들이 청년 세대와 청년 기업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하며, 청년세대의 역량강화 과정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에마뉘엘 라가리그 수석 부사장은 “다국적기업은 SDGs 이행을 목표로 하는 청년 기업가들에게 기술력을 지원하고 그들의 창업 과정에 직접적인 조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리 윌팅 지멘스 인공지능 대표는 “최근인공지능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기업가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다국적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기술력을 통해 청년 기업가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글로벌컴팩트의 10 대 원칙이 기업과 청년 기업가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엔스 조세크 대표는 “청년 기업가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형태의 지침서”라고 답변했습니다. 에마뉘엘 라가리그 부사장은 “기업들은 10 대 원칙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내부의 비즈니스 전략과 지속가능경영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목표 실현을 촉진하는 과정을 통해 다국적기업과 청년 기업가들의 파트너십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세대와 청년기업가들의 참여를 증진하고 2030 년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채택하고 가속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올리 윌팅 대표는 “현 세대는 지속가능하고 더욱 큰 임팩트 창출을 원한다”면서, “기업들은 청년 기업가들에게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관련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다국적 기업과 청년기업가들이 탄소화(Decarbonization), 부의 재분배, 그리고 디지털화에 우선순위를 맞추면서 서로 협력관계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이앤 다인 연구소장은 “청년 세대가 글로벌 이슈에 대항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한다”고 말하면서, “다국적기업의 멘토링, 자원 제공, 투자, 지원 등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민관 협력의 역할 또한 2030 년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가속화 과정을 지원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UNGC 회원뉴스

1. 거래소, 'ESG 공시' 전담팀 마련... 사회적임 정보공개 본격화

- 1월 22일, 한국거래소 유가시장본부는 공시부에 있던 공시 사업을 따로 분리해 기업지원부 내에 ESG 공시 전담팀을 꾸리고, 지배구조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SRI 정보 공개 활성화 정책을 본격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사업계획'을 발표함
- 최근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원칙에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추가하는 등 ESG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거래소도 ESG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거래소는 미래 성장산업과 관련한 기업들을 잠재력 위주로 평가하여, 해당 기업들이 보다 쉽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수 있도록 진입 요건을 개선하는 등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도 제시하였음
- 또한, 늘어나는 해외 직접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지수 합성 상장지수펀드(ETF), 해외주식형 상장지수증권(ETN)의 상장을 추진하고, 지난해 인기를 끈 부동산 펀드와 리츠(부동산자산신탁)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투자 상품도 늘릴 계획

[조선비즈]

2. 두산그룹, 감사기구 독립성·전문성 돋보여... CSR 위원회 운영해 사회적 책임 강조

- 두산그룹은 건전한 지배 구조 확립을 위해 노력 중으로, 특히 사외이사를 선임해 이사회 내에서 사내 경영진과 사외이사 간 상호 견제 기능을 도모함
- 두산그룹의 지주회사인 (주)두산 이사회는 3 명의 사내이사와(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동현수 부회장, 김민철 부사장) 4 명의 사외이사(이두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천성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형주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백복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등 총 7 명으로 구성돼 있음
-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비롯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내부거래위원회 등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3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며 대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 또한 기업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를 위해 대표이사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CSR위원회를 운영 중으로, 인권과 노동, 환경, 고객과 제품 관리, 공정 운영, 사회 공헌 등 각 부문을 담당하는 임원들이 정기 협의를 통해 기업의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바람직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고 있음
- 두산은 홈페이지에 지배 구조 관련 정보를 투명히 공시하고 있으며, 두산그룹 관계자는 “두산은 투명하고 우수한 감사 기구 체계를 갖춰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주관하는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평가에서 A 등급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함

[한국경제매거진]

3. 한전 KDN, 친환경 경영활동 선도 인정받았다



- 1월 21일, 한전KDN은 로이드인증원으로부터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을 수여받았음
- ISO14001은 환경경영을 위한 조직, 구조, 책임, 절차, 공정 및 경영 자원 등을 규정하고 체제를 갖춰, 기업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 파악 및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 개선 활동에 대한 프로세스를 평가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환경분야 국제인증임
- 이번 인증심사 평가에서 한전KDN은 '중장기 환경전략 수립'을 통한 전사차원 환경관리와 환경 비상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 안전장비 적정 구비 등 업무 환경개선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음
- 한전 KDN 은 이번 인증·심사를 통해 환경관리체제를 재정비하고, 인증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임직원 환경 관련 의식 제고 교육을 시행하는 등 체계적 환경경영시스템 정착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
- 한전KDN 박성철 사장은 "앞으로도 ICT분야에 친환경분야를 접목한 기술개발을 통해 미세먼지저감 등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 설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화 노력을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로 친환경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힘

[에너지데일리]

CSR 뉴스

1. 정부 · 공공기관에 사회적가치 전담부서 생긴다



- 정부는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정부와 공공기관 등 각 기관별로 사회적가치를 전담하는 부서와 인원을 배치하고 공공기관 채용·승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책임 관련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확정, 발표함
- 그동안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국정운영의 중요 아젠다로 채택하고, 주요분야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려 노력해 왔으나, 체계적 정책방향 설정이나 전반적 인식공유는 미흡했다는 분석에 따라 공공부문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민간에 확산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한 것임
- 우선 공공부문의 경우 △조직 구조·문화 개선 △인사 단계별 사회적 가치 반영 △공공부문 평가체계 개선 △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추진하고, 정부 운영에서 보강해야 할 사회적 가치의 구체적인 유형 등을 정부조직관리지침 등에 명문화할 예정임
- 민간확산 지원을 위한 과제로는 △기업·국민 등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 △공동체 역량 제고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경제 성장 가속화 등을 꼽음

[머니투데이]

2.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 기업경영 투명성 강화



- 정부가 상장기업 사외이사 임기를 6~9 년으로 제한하고, 특정 회사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 년이 지나지 않으면 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시장·기업의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하였음
- 자본시장법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5%룰'을 조정했고, 이번 개정으로 5 일 이내 지분 변동 상세보고 대상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가 명시됐음
-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또한 눈에 띄는 대목이며, 기존에는 국민연금 등이 이런 목적으로 정관을 바꾸려면 경영참여로 간주, 지분 변동이 있으면 5 일 이내에 보고해야 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이런 행위는 일반투자자로 분류됐고, 앞으로는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투자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월별 보고를 하면 됨
- 이번에 개정된 3 개 법 시행령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에서는 즉각 '경영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하였고, 국민연금을 통해 정부가 기업에 입김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지만, 시민단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역부족'이라고 평가함

[세계일보]

3. ESG, 미래투자 필수 아이콘 되다



-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책임투자 규모는 2017년말 기준 약 30조6830억 달러(2017년 말 기준, 약 3경2737조원)로 집계돼 2015년말 대비 2년 동안 34%의 성장률을 보임. 유럽의 회는 '지속가능투자행동계획(Sustainable Finance Action Plan)'을 도입해 자산운용사들의 책임 투자 활동 보고에 통일된 공시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그린 워싱(green washing, 위장된 친환경 경주의)을 방지하도록 함
- 4000조원을 굴리는 세계 3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 (SSGA)는 최근 사이러스 타라포레발라 최고경영자(CEO) 명의의 서신을 통해 ESG가 미진한 주요국 대기업들에 문제 개선을 요구함. "ESG는 장기 전략을 위한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며 당장 올해 주주총회 시점에서 ESG 개선안이 부실한 기업에는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힘
-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규모는 국내 주식 위탁 운용 4조5800억원에 국내 주식 직접 운용 22조600억 원이 추가되며 총 26조7392억 원 규모로 증가함. 향후 국민 연금이 국내 주식 위탁 운용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 책임투자 규모도 이와 함께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헤럴드 경제]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1 월 15 일부터 1 월 31 일까지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회원사는 없습니다.

2. COP/COE 제출회원

1 월 15 일부터 1 월 31 일까지 6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삼덕총상
- 이화다이아몬드공업
- 슬로워크
- 경기도일자리재단
- 한국마사회
- 대우건설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첫 COP 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 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매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후에도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 년도 연회비 미납 회원사 안내

<19 년도 연회비 미납 회원사>

경기도시공사, 한국남부발전, BGF 리테일, 이화다이아몬드공업, 한국조폐공사, 한국연구재단, 구미시청, 울산광역시 남구청,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한국벤처투자,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산시공사, 안양도시공사, 극지연구소, 카라반이엑스, 한국전자인증, 리인터내셔널, 마콜건설그룹, 동명전기, 바이오제네틱스, 제니컴, 디씨티오토, 비엘에치아쿠아텍, 제주관광공사, 미술등록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카이스트경영대학, 신한대학교, 늘푸른직업재활원, 환경실천연합회, 열반유스아카데미, 한국품질재단,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 CJ 제일제당, 케이티에스테이트, 롯데제과, SK 이노베이션, 서스틴베스트, 나인, 델타이엔씨, 원광대학교,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LG 디스플레이, SK 주식회사, 삼덕통상(주), 스완커뮤니케이션, 씨엔커뮤니케이션, (주)에프엠브이디, 아진트랜스,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진해장애인복지관,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사)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나노기술원, 신용보증기금, 현대엘레베이터, 부영, SK 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LS 전선, 한국전력공사,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롯데지주

2 월 31 일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미납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http://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